

# 고종대 왕실도서관의 변천 과정에 관한 통시적 고찰

## A Diachronic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Royal Library during the Gojong Period

송 승 섭 (Sung-Seob So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고종대 왕실도서관 변천의 의의와 시사점 |
| 2.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 5. 결론                    |
| 3. 고종대 왕실도서관 운영 현황과 변천 과정 |                          |

### 초 록

이 연구는 근대화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고종 시대사 속에서, 왕실도서관(규장각)의 변천 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그 흐름을 분석하여 통시적 의미를 찾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고종대 왕실도서관과 개인도서관 역할을 한 고종의 서재와 도서 수장처 전체 현황을 조사했다. 둘째, 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고종대 초기 왕실도서관부터 대한제국 시기 왕실도서관까지 이어지는 변천 과정과 그 의미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각종 서목 등 당시의 다양한 사료와 함께 고찰했다. 셋째, 경복궁, 창덕궁, 경운궁으로 이어지는 왕실도서관의 시·공간적 변화와 양상을 왕궁별로 도식화하여 정치·사회적 의미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고종은 규장각을 왕권을 강화하고, 근대화과정에서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장치로 활용했다. 둘째, 고종의 정치적 지향을 담은 핵심 공간인 어진 봉안처, 도서 수장처, 집무처는 경복궁, 창덕궁, 경운궁에 걸쳐 별전으로서 일곽을 이루며 점차 서구식 건축양식으로 변화했다.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organize the transition process of Royal Library (Gyujianggak) in chronological order, analyze the flow and find diachronic meaning during Gojong period, the most confused time at home and abroad prior to modernization. For this, first, the total status quo of King Gojong's library and book storage which played role of Royal Library and a personal library in Gojong period was investigated. Secon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investigation, the transition process from the Royal library in the early days of King Gojong to the Imperial library during the Korean Empire and its meaning were considered with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eungeongwon diary, various catalogs and historical records. Third, the changes of space-time and aspect of Royal library through the palace of Gyeongbokgung, Changdeokgung, and Gyeongungung were examined to draw a sociopolitical meaning by schematizing each palace. As a result, first, King Gojong conjugated Kyujianggak as a device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and accommodate Western cultur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Second, the crucial spaces containing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King Gojong, such as the present king's portrait storage place, library(book storage), and office, formed a separate hall across Gyeongbokgung, Changdeokgung, Gyeongungung, and gradually changed into a Western architectural style.

키워드: 규장각, 왕실도서관, 왕실도서관의 변천과정, 고종대 도서관

Gyujianggak, Royal Library, King Gojong's Library,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Royal library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육대학원(사서교육) 부교수

(libsong@mju.ac.kr / ISNI 0000 0004 6322 6760)

논문접수일자: 2022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8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8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213-239,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213>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고종 시대는 조선 시대 마지막 왕조기다. 조선 후기와 개화기, 근대를 잇는 역사적 과도기로서 우리나라 왕실도서관의 전근대적 상황과 근대를 지향하는 면모를 시대적 변화와 함께 돌아볼 수 있다. 특히 고종대에 존재한 왕실도서관과 개인도서관 역할을 한 상당수 건축물과 그 흔적이 되는 기록물이 현존하고 있어 이를 통해 근대로 향하는 왕실도서관의 변천 과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여러 타 분야 학계에서 고종 시대사 속에 왕실도서관을 대표하는 '규장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우리 학계에서는 서지학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다만 고종대 왕실도서관 전체 현황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변천 과정은 부분적으로만 연구되었다. 고종대 왕실도서관은 물론 모든 도서관은 당대의 문화와 사회를 보여준다. 이 연구 역시 고종대 왕실도서관은 고종과 그 시대적 상황, 즉 당대 국내외의 정치 상황, 사회 제도적 환경, 그리고 기술과학이 포함된 건축사적 측면까지를 포함하여 통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기본 시각에서 출발했다.

고종대 왕실도서관은 '규장각(奎章閣)'이라는 중앙관서 직제에 속해 있지만, 실제 도서관의 역할을 '규장각'이라는 하나의 관명과 조직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규장각'이라는 왕실도서관 역할을 한 전각뿐만 아니라 고종의 개별 서재와 도서 수장처 기능을 한 다양한 전각이 있고, 이 전각들이 경복궁, 창덕궁, 경운궁에 걸쳐 설립되면서 시공간적 변화와 함께 그 기능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규장각 기능의

변화는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른 대응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다면적이고 복합적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연구가 종합적이고 학제적 성격을 갖더라도 고종대 규장각과 왕실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고증하고 역사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시도가 분명 도서관사의 영역을 정치제도, 사회·문화사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 문명사는 '도서관'이 책을 수장하고 열람하게 하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왔다.

이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연구는 근대화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고종대의 역사 속에서 '규장각'이라는 직제하에 왕실도서관의 변천 과정을 연대사적 정리와 함께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고자 시작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종대의 왕실도서관과 개인도서관 역할을 한 고종의 서재와 도서 수장처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조사한 현황을 바탕으로 고종대 초기부터 대한제국 시기 왕실도서관까지 이어지는 변천 과정과 그 의미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각종 서목 등 당시의 다양한 사료와 연결하여 살펴본다. 셋째, 경복궁, 창덕궁, 경운궁으로 이어지는 왕실도서관의 시공간적 변화와 양상을 왕궁별로도 식화하여 정치·사회적 의미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고종대 왕실도서관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고종과 연구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먼저 살

펴보고자 한다. 고종은 조선 후기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1863년부터 1907년까지이며 영조의 현손인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다. 흥선군과 익종비 조대비의 목계 아래 후사가 없던 철종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고종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 야욕이 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흥선대원군과 명성왕후·외척 연합의 대립,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격화하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했다. 열강들 사이의 외교적 노력과 대한제국 수립 선포 등으로 자주권을 지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이어 일본의 강요로 퇴위했고 1919년 승하였다.<sup>1)</sup>

‘고종’을 설명하는 이 간단한 요약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고종은 왕실 계보 상, 정통성이 부족했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10여 년간 대원군의 강력한 섭정하에 있었다. 이때 시행된 소위 서원철폐나 동포제로 대표되는 대원군의 개혁정치는 유림의 반발을 샀고, 대원군 문중 내부의 세력도 명성황후를 정점으로 세력 대결에 가담했다. 결국 1874년 청에 의해 대원군이 축출되었지만,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갖지 못한 고종은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일족과 결탁해서 정국을 운영해야 했고, 친정이 시작되면서 맞이한 1876년의 개항과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속에 이루어진 개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1882년의 임오군란과 청나라 군대의 개입, 1884년의 갑신정변, 1893년의 동학혁명과 이를 계기로 발생한 갑오개혁,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 이어진 1895년의 명성황후 살해사건과 1896년의 고종의 아관파

천, 1897년의 대한제국의 선포, 1904년 러일전쟁 등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숨 가쁘게 이어졌다(하원호, 2001, 173-178).

이상 내용과 같이 고종대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후기와 개화기로 연결된 격변기에 정치·사회적으로 국내외의 영향 변수가 많았다. 실제 도서관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물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 일본, 그리고 당대의 제국주의 세력인 러시아와 미국 및 유럽을 통해 근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종대 왕실도서관의 변천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찾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 2.1 선행연구

조선 시대 왕실도서관은 항시 존재하였지만, 왕의 업적과 함께 우리 역사에 깊이 각인된 것은 세종대 집현전(集賢殿)에서 시작된다. 세종대 왕실도서관의 면모는 개혁정치로 귀결되는데 이는 임금과 신하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읽어내고 지혜를 모아 이를 선량한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정으로 왕에 오른 세조대에 와서는 집현전이 혁파의 대상이 되어 사라지게 된다. 집현전에 이어 등장한 홍문관과 규장각의 정의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근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홍문관(弘文館)은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 기관으로 궁중의 경적(經籍)을 관장하고, 문한(文翰)을 다스리며, 고문(顧問)에 대비한다. 이것이 경국대전(經國大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종(高宗)편. 요약문.

典) 이래 전통적인 왕실도서관의 기능과 책무이다. 이러한 것이 정조대 규장각이 만들어지면서 달라졌다. 달라졌기보다는 홍문관의 기능을 통합하면서 확대되었다. 규장각(奎章閣)은 종이품아문(從二品衙門)으로 위상이 높아졌고 주요 기능이 바뀌었다. 역대 왕의 어제(御製)·어필(御筆)·선보(璿譜)·세보(世譜)·고명(顧命), 현왕의 어진(御眞)·어제·어필을 봉안하는 일을 관장한다. 규장각을 내각으로 하고 외각(外閣)도 만들었는데 외각(外閣)은 교서관(校書館)을 통해 경적(經籍)의 인쇄와 반포 및 향축(香祝), 인전(印篆)에 관한 임무를 맡는다.<sup>2)</sup>

이 글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규장각의 현왕 어진 봉안 기능이다. 조선 시대 역대 왕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왕권의 안정이었을 것이다. 왕실의 모든 직제와 기능은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개혁정치 기반을 만드는 것이며, 그 수단으로 왕실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했다. 이렇게 규장각의 어진 봉안 의례를 비롯하여 정치 제도사 측면과 왕실도서관의 실질적 자료인 서목을 다룬 선행 연구 중,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해원(2008)은 경복궁배치도와 북궐도형(北闕圖形)을 중심으로 전각의 시기별 변화와 후원 정비과정을 조사했는데 특히 고종의 개인도서관 역할을 한 집옥재의 건축 형태와 용도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이민아(2021a)는 “고종대 궁궐 의례공간(儀禮空間) 정비의 지향”이라는 박사논문을 통해 전통적 의례 공간

의 확장이 국왕의 정통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자 했고, 이어진 후속 연구(이민아, 2021b) 또한 고종의 1870-1880년대 어진봉안처 및 집옥재 및 관문각, 수옥헌의 건립이 왕권 강화와 신문물 수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 정치·제도사 측면에서, 연갑수(1994)는 고종의 초중기(1864~1894)의 정치변동 과정과 규장각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원군 섭정기, 규장각의 위상과 고정 친정기의 규장각제도의 복원 및 위상 강화과정을 고찰했다. 한영우(1997)는 규장각 자료의 정리와 활용 측면에서 정조시대, 순조~고종대, 통감부시대, 일제강점기,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규장각시대로 나누어 분석했다. 하원호(2001)는 고종대의 시대사적 흐름을 개관하고, 고종의 개화에 대한 관심사와 당대의 주요 사건을 일별하며 고종에 대한 인물사적 평가를 시도했다. 결론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수습과정의 문제와 전제군주제 추진 등을 들어 고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나타냈다. 반면 이태진(2000)은 고종을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개화를 추구한 개명 군주로서 적극적 대외관계를 통해 근대화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했다. 이렇게 엇갈리는 고종에 대한 평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주적 근대화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양분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셋째, 고종대 여러 전각에서 나온 서목에 대한 분석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종대 서목의 서지적 특성보다는 서구

2) 한국사DB-조선시대법령자료 대전통편(大全通編) 권1에서 홍문관과 규장각 조항을 보면, 조선 시대 왕실도서관의 기본기능을 홍문관은 “掌內府經籍·治文翰·備顧問”으로, 규장각은 “掌奉列朝御製·御筆·璿譜·世譜·顧命·當宁御眞御製御筆”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출처는 아래와 같다. 검색일[2022.9.5.]

(홍문관: [https://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_301\\_0040\\_0470\\_0050](https://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_301_0040_0470_0050))

(규장각: [https://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_301\\_0040\\_0460\\_0010](https://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_301_0040_0460_0010))

의 근대학문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고종과 규장각의 역할의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먼저 장영숙(2009)은 1880년대 초반 고종이 상당량의 개화 관련 서적들을 수집하여 규장각에 보낸 책들을 목록화한 내하책자목록(內下冊子目錄)을 분석하여 고종대의 개화 관련 서적 수집의 실상과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로서 장영숙(2012)은 규장각 서목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집옥재 서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개화 서적의 규모와 종류, 그리고 활용실태까지 분석했다.

이상 살펴본 규장각과 왕실도서관 관련 분야에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어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주요 연구만 찾아 정리했다. 위의 선행연구가 분야별 주제의 핵심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이라면 이 연구는 시기별 분야별로 전체적인 연관성을 찾아내어 그 역사성의 지향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 2.2 연구 방법과 한계

이 연구는 고종대의 시·공간적 상황을 정치·제도적 측면과 사회·건축학적 의미를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여러 결론과 주장에 대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내각일력 등 고종대 사료를 일별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답사하여 기존 기록과 현 상황을 대조하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sup>3)</sup> 주요 사료는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sup>4)</sup>를 중심으로 활용하였고, 궁궐지(宮闕誌) 등 원문기초 사료에는 직접 접근하지 못했다. 따라서 내각일력(內閣日曆)이나 규장각지(奎章閣志)를 통한 제도사적 측면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이 연구는 왕실도서관 관련 통시적 고찰로서 각 사료의 출처는 세밀하게 조사하여 기록하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일력은 당대의 기준에 따라 음력을 원칙으로 사용했다. 다음, 이 글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 우선으로 한문은 병기했고, 당대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궁궐의 도면과 배치도를 활용했다. 그러나 시대별로 궁궐 전각이 화재와 변란으로 여러 번 바뀌어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것은 아니다. 각주는 내주와 외주를 같이 썼는데 지문이 긴 경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주를 썼다.<sup>5)</sup>

연구 범위에 있어서 시기상 고종의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과 일본에 파견되었던 영선사와 수신사, 조사시찰단, 외교 고문의 영향 등은 이 연구 주제에 함의되어 있지만, 추가 연구로 남겨두었고, 출판·인쇄기능을 포함한 외규장각도 따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왕실도서

- 
- 3) 답사는 3차례에 걸쳐, 5월 28일 경복궁, 6월 16일 창덕궁(후원 포함), 6월 19일 덕수궁(중명전 포함)을 돌아보았다. 창덕궁 후원 일정은 전문 해설사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4)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와 한국역사정보통합정보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https://www.koreanhistory.or.kr/>)의 편년자료 서비스를 주로 활용하여, 원문의 출처를 표기했다. 국기기관의 신뢰도를 인정하여 일일이 관련 도메인까지는 표시하지 않았다.
  - 5) 인터넷을 활용한 출처는 대부분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과 관련된 것으로 도메인이 긴 경우, 지면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명 등 확인, 검색이 가능한 범위에서 간략하게 기술했다.

관의 정의는 여러 측면으로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고종'의 정치적 공간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왕실도서관에는 어람용 도서가 따로 있고, 세자와 종친, 내각 신하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서적과 서재가 따로 있었지만, 전각의 위계<sup>6)</sup>에 따라 모두 왕의 이용 시설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분하지 않았다.

### 3. 고종대 왕실도서관 운영 현황과 변천 과정

조선시대 왕실도서관으로 널리 알려진 곳은 세종대 집현전과 정조대 규장각이 있다. 두 기관 모두 왕실도서관이면서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한 관서인데 '집현전'은 현 경복궁에 '수정전'에 다시 자리 잡았고<sup>7)</sup> 규장각은 처음에 창덕궁 후원 일대에 자리 잡았으나<sup>8)</sup> 정조 5년 궐내각사의 핵심 지역으로 그 영역을 확장했다.<sup>9)</sup> 현

재 대부분 복원되어 있는 고종대 규장각 역할을 한 왕실도서관 또한 정조의 유지를 받들어 이어졌는데 고종은 화재와 정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이어와 환어를 반복함으로써 창덕궁과 경복궁, 경운궁을 모두 사용하였고, 규장각과 부속시설도 왕궁과 함께 바뀌었다.

고종대 왕실도서관이 고종대 이전의 왕실도서관과 다른 측면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고종대 내에서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전대와 비교하고자 한다. 고종대 왕실도서관의 변천을 연대사적으로 구분하면 고종 초반 대원군이 섭정을 통해 실권을 장악한 10년의 기간과 이후 최익현 상소 등을 발판으로 친정을 선포한 고종의 친정기,<sup>10)</sup>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의 대한제국기로 구분할 수 있다. 왕궁 별로 임어 시기와 이어 시기는 조선왕조실록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고종의 궁별 임어 시기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조사되었다.<sup>11)</sup>

6) 궁궐 건물은 크기와 격에 따라 '전(殿), 당(堂), 함(閣), 각(閣), 재(齋), 헌(軒), 루(樓), 정(亭)'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품격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가는 순서이며 건물들의 신분과 위계질서라고 할 수 있다(홍순민, 120-121). 당연히 왕은 모든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7) 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11월 8일.

8) 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 9월 25일.

9)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3월 10일자 기사로 보면, 이문원(摛文院)을 도총부(都摠府)로 옮기고, 도총부를 창경궁(昌慶宮)의 구부(舊府)로 환접(還接)하게 하였다. 이문원이 옛날에는 금원(禁苑)에 있었는데 영숙문(永肅門) 밖 국별장청(局別將廳)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규장각 제학 유언호(兪彦鎬)가 차차(筭子)를 올려 말하기를, "내각의 설치에 있어서, 위로 성모(聖謨)를 받드는 것은 멀리 용도각(龍圖閣)과 보문각(寶文閣)을 모방하였고, 아래로 인재를 기르는 것은 가까이 집현전(集賢殿)과 호당(湖堂)을 참작하였습니다..."라고 하여 규장각이 고려시대 보문각과 조선초기 세종조의 집현전과 독서당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0) 1873년 10월 25일과 11월 3일에 걸쳐 경복궁 중건과 서원철폐, 청국 화폐 수입 등 대원군이 취한 일련의 정책에 따른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는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은 하야했고 이에 친정을 선포한 것으로 본다(고종실록 10권 10월 25일, 11월 3일자 참고).

11) <표 1>은 고종실록 1권, 고종 즉위년 12월 13일;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7월 2일;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12월 20일; 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5월 27일; 고종실록 14권, 고종 14년 3월 10일;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1월 17일;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4월 3일;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5월 24일;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2월 11일(양력);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2월 20일(양력);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2일(양력)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표 1〉 고종의 궁별 입어 기간

구분	궁궐	입어 시기(기간)	이유
대원군 집권기	창덕궁	1863.12.13. - 1868. 7. 1. (4년 7개월)	창덕궁 즉위
	경복궁	1868. 7. 2. - 1873.12.19. (5년 6개월)	경복궁 중건
고종 친정기	창덕궁	1873.12.20. - 1875. 5.27. (1년 6개월)	경복궁 화재
	경복궁	1875. 5.28. - 1877. 3. 9. (1년 10개월)	환어
	창덕궁	1877. 3.10. - 1885. 1.16. (8년 10개월)	경복궁 화재
	경복궁	1885. 1.17. - 1894. 4. 3. (9년 4개월)	환어
	창덕궁	1894. 4. 4. - 1894. 5.23. (약 2개월)	일시 대피
	경복궁	1894. 5.24. - 1896. 2.10. (1년 9개월)	환어
	러시아공사관	1896. 2.11. - 1897. 2.20. (1년)	아관파천
대한제국기	경운궁(덕수궁)	1897. 2.20. - 1897.10.12. (8개월)	경운궁 환어
	경운궁	1897.10.12. - 1907. 7.19. (10년)	대한제국선포

### 3.1 고종 초기, 대원군 섭정기의 규장각

규장각은 정조 때 왕권 강화 방안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정조는 1776년 9월 25일에 창덕궁 금원 북쪽에 규장각을 세우고, 제학·직제학·직각·대교·검서관 등 관리를 두었다.<sup>12)</sup> 1782년에 강화도의 외규장각(外奎章閣, 외각)이 완성되자 원래의 규장각을 내규장각(內奎章閣, 내각)으로 이르고, 서적을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sup>13)</sup> 규장각은 경관직(京官職) 종이품아문이지만, 1781년 정치기구에서 문화정책 추진 기관의 핵심 부처로 탈바꿈하면서 규장각은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사간원, 종부시 등 제 기관의 기능을 병합하여 장악하여, 이른바 청직(淸職) 중에 청직이라 불릴 정도로 정부 관료체제의 중심이 되었다(정옥자, 2006, 95).

이러한 정조대 영향력은 이어져 고종대까지 이어져 규장각은 유력 가문들에 의해 굳건히 장

약되어 있어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대원군은 규장각의 현판과 전각을 종친부(宗親府)로 옮겨 자신의 지지 세력을 강화하고 역으로 흥문관의 위상 강화에 나섰다, 오랜 시간이 지난 고종 7년 이후에야 비로소 규장각을 자신의 세력권에 넣을 수 있었다(연갑수, 1994, 64-67). 이렇게 규장각은 정조대 이후 정치세력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1866년 10월 병인양요로 외규장각이 불타고 의궤가 약탈당하는 참사가 있었으나 당시 고종의 힘이 미치는 범위는 아니었다. 1868년(고종 5) 7월, 경복궁 중건에 따라 고종이 창덕궁에서 이어하게 되어 규장각도 함께 옮겨졌으나, 창덕궁 규장각의 중심건물로서 주합루가 갖고 있던 어진 봉안 기능과 어제 어필의 보관 등 왕실 장서처로서의 전각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세세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규장각의 핵심

12)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9월 25일.  
13)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2월 14일.

부서였던 이문원(摛文院)에 관한 기록에서 볼 때, 경복궁 이어 후, 이문원도 바로 옮겨 온 것으로 판단된다.<sup>14)</sup> 그런데 1869년(고종 6) 고종은 성균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규장각 서책을 존경각에 내려보내 보관하고 장의(掌議)가 주관하게 하는 규장각 장서의 분송 지시가 있었다.<sup>15)</sup> 이는 과거 규장각 중심의 장서처 역할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왕실 이외의 자료 보관과 이용에 대해서는 1871년(고종 8) 이유원(李裕元)의 저술에서 엿볼 수 있다. 일반 서고로는 취규루(聚奎樓), 용문루(隆文樓), 용무루(隆武樓), 동이루(東二樓) 등이 확인되어 서고 변동의 일부를 알 수 있는데 창덕궁의 옛 서고의 서적이 모두 경복궁으로 옮겨 왔는지는 알 수 없다.<sup>16)</sup>

그러나 1872년(고종 9) 1월 어진 모사의 명이 있었고,<sup>17)</sup> 10월에 어진이 규장각에 내려지자 이를 봉안하는 건물이 경복궁 수정전(修政殿)으로 정해졌고,<sup>18)</sup> 이에 규장각 관원들은 1872년 10월 15일 어진 봉심을 시작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적으로 어진을 봉심하게 되었다. 또한 1873년(고종 10) 4월에는 대왕대비전과 익종 대왕의 새 옥책과 옛날 금보를 수정전에 옮

기게 하였는데,<sup>19)</sup> 이를 통해 왕실 장서의 수장처로서 역할과 현왕의 어진 봉안이라는 규장각이 갖고 있던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연갑수, 1994, 67). 즉, 대원군 섭정 아래서 고종은 자신의 세력권에 규장각을 두지 못했지만, 현왕의 어진 봉안을 통해 친정 의지와 규장각의 본래 권한을 살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73년 11월 고종은 친정을 선언하기 전에 경복궁 향원정 뒤에 건청궁(乾淸宮)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건청궁 영역은 이후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가 되는데 사대부 사가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특히 건청궁은 정조가 창덕궁 후원 주합루를 중심으로 규장각 영역 일원을 완성한 것을 모방했다는 점에서 고종의 정조에 대한 계승의식을 엿볼 수 있다. 우의정 한계원(韓啓源)은 이 궁은 동궐(東闕)의 주합루(宙合樓)와 서향각(書香閣)을 모방한 것이라고 했고 고종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sup>20)</sup> 곧 정조대 왕실도서관의 중심이 되었고 정조가 직접 현판을 쓴 주합루와 왕실 장서의 포쇄 기능을 했던 서향각이라는 양대 전각의 의미를 고종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경복궁

14) 승정원일기 고종 7년(1870) 1월 26일: 실적을 내지 못하였으므로 규장의 직함과 상방 제거의 직임을 체직하여 주기를 청하는 호군 조성하의 상소로서 이문원(摛文院)의 직임 기간을 유추할 수 있다.

15) 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9월 13일

16) 임하필기(林下筆記) 춘명일사편(春明逸史編), 권30. 이문원 서목(摛文院書目) 745쪽(연갑수, 1994, 69 각주 50번을 재인용)

17) 승정원일기, 고종 9년(1872) 1월 1일.

18) 내각일력(內閣日曆), 고종 9년 10월 10일(승정원일기 10월 15일, 奎章閣啓曰, 臣等進詣修政殿, 御眞展奉, 奉審無頓, 而閣內諸處, 亦爲無頓之意, 敢啓. 傳曰, 知道)

19)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전교하기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무신년(1868) 환갑에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할 때의 신책(新冊)과 구보(舊寶),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환갑에 존호를 추상(追上)할 때 대왕대비전에 존호를 가상한 신책과 구보, 중궁전 책봉(冊封) 때의 옥책문과 교명(敎命)을 수정전(修政殿)에 이봉(移奉)하라.”고 기록되어있다.

20)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8월 19일,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5월 10일,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8월 19일 자 참조.



건청궁 일대에 복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3.2 고종 친정기

#### 3.2.1 창덕궁 입어기

1873년(고종 10) 12월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지만, 경복궁에 두 차례 화재<sup>21)</sup>가 크게 발생하여 고종은 다시 창덕궁으로 옮겨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된다. 이 기간 고종은 경복궁 내전 일각의 재건을 논의하고<sup>22)</sup> 대원군 집권기에 약화된 규장각의 기능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고종은 1874년(고종 11) 6월, 정조 이후 “규장각에서 줄어든 것을 적어 올리라”는 지시를 내렸고<sup>23)</sup> 같은 해 10월, “규장각의 제반 절차를 모두 옛 규례대로 복구하여 행하라”라고 명했으며,<sup>24)</sup> 이와 더불어 아패(牙牌) 사용도 허용하였다.<sup>25)</sup> 아패 사용은 정조가 내각 신하들에게 규장각에서 관리하는 도서의 열람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표신(標信)이었는데 대원군이 규장각을 견제하기 위해 그 사용을 중

지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고종은 친정을 통해 종친이 아닌 규장각 각신이 현왕의 어진 및 역대 왕의 어제 어필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규장각의 위상을 다시 예전과 같이 돌려놓았고, 이는 인사로도 반영되어 1874년 1, 2월에 직제학으로 민규호(閔奎鎬), 직각 민영목(閔泳穆), 대교에 이재극(李載克)을 임명하는 등 규장각을 고종 중심의 정치세력으로 변화시켜 나갔다.<sup>26)</sup> 한편, 창덕궁 이어 후 경복궁 수정전에 봉안되었던 고종의 어진은 창덕궁 주합루가 아닌 서책의 포쇄를 주로 맡았던 서향각에 봉안함으로써 전각의 위상이 바뀌기도 했다.<sup>27)</sup>

그러나 이 시기 규장각 관련 뚜렷한 변화는 장서의 수집과 정리에서 나타났다. 이미 정조 때 편찬된 규장총목<sup>28)</sup>이 기본이 되었지만 이후 시기에 수집된 자료들의 서목 편찬 작업이 여러 대에 걸쳐 진행되어 온 가운데 고종대에 이문원서목(摛文院書目), 열고관서목(閱古觀書目), 서고서목(西庫書目)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들 3종 서목의 정확한 연대는 기록으로 특정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문헌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종

21) 1873년 12월 10일 자경당 내 순희당에서 1차 화재로 전각 364칸 반, 12월 14일 흥복전 수인문 행각에서 화재 발생 2차 화재로 56칸이 소실되었다(승정원일기 참고).

22) 승정원일기 1874년(고종 11) 1월 20일 자에 보면, 궁궐한 재정으로 내전 일각의 재건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종은 두 번의 큰 화재를 접하여 재건축시 구조변경을 지시한다. 앞뒤 건물이 서로 붙어있고 회랑이 서로 끊이지 않는 점에 착안, 이의 시정과 함께 복도는 벽돌로 쌓고 지붕도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만 하고, 전각도 너무 높게 기둥과 주춧돌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승정원일기 1874년 5월 5일).

23) 내각일력 고종 11년 6월 16일.

24) 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10월 1일.

25) 승정원일기, 고종 11년(1874) 1월 29일.

26)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1월 19일, 2월 17일, 5월 2일 자 관직 제수 참고.

27) 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9월 30일, 10월 1일.

28)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6월 29일: 정조는 《도서집성(圖書集成)》 5천여 권 등 북경의 책방에서 구입한 서적과 구 홍문관의 소장본, 강화부 행궁에 저장되어 있던 명(明)나라 하사본, 《방서록(訪書錄)》 2권을 찬술하여 내각의 신하들로 하여금 구매하게 한 책들을 정리하게 하였다. 다음 열고관을 창경궁 내원 규장각의 서남쪽에 건립하고 중국 책들을 저장하였으며, 열고관의 북쪽에 서서(西序)를 건립하여 우리나라의 책을 저장하였는데, 총 3만여 권이었다. 각신 서호수(徐浩修)가 서목으로 만든 것이 경서류 아홉, 사서류 여덟, 자서류 열 다섯, 집서류 둘, 열고관 서목 6권, 서서 서목 2권이며 이를 통틀어 《규장총목(奎章總目)》이라고 명명하였다(기사 요약).

친정 직후인 1874년 전후로 보고 있다. 또한 열고관서목에는 열고관 이외에 개유와(皆有窩), 문헌각(文獻閣), 연경당(演慶堂) 등의 서목이 함께 있어서 이들 서목을 통해 창덕궁 친정 초기, 규장각 서고로 이문원<sup>29)</sup> 열고관 개유와, 문헌각, 연경당, 서고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연갑수, 1994, 71-72).

### 3.2.2 경복궁 임어기

1875년 5월 경복궁 재건 공사<sup>30)</sup>가 끝나자 고종은 경복궁으로 환어했다. 그러나 1876년 11월 4일, 이전보다 더 큰 대형화재가 다시 발생하여 교대전울 비롯한 내전 일각 922칸의 전각이 전소되었고 열조(列朝)의 어필과 옛 물건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대보(大寶)와 세자의 옥인(玉印) 외에 모든 옥새(玉璽)와 부신(符信)이 전부 불탔다.<sup>31)</sup> 또한 대내에 수장 하였던 서적도 남은 것이 없이 불타버렸고, 내각의 서적들은 개유와(皆有窩)에 수장된 것만 화를 면하게 되었다.<sup>32)</sup> 이후 불탄 전각 수리에 4개월이 걸렸고, 고종은 주로 내전 일각과 거리가 먼 건청궁에서 지냈는데 이에 1875년 5월

수정전으로 옮겨졌던 어진과 교명(敎命), 책보(冊寶)를 9월에 건청궁 관문당(觀文堂)으로 옮기도록 했다.<sup>33)</sup> 이때 관문당은 바로 관문각(觀文閣)으로 개칭하고 규장각에서 관리하게 된다. 어진 봉안처와 왕실 책보의 수장처로서 처음 건청궁 관문각의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sup>34)</sup>

이 시기는 1년 6개월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1876년 2월 3일(양력 2월 27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sup>35)</sup>가 맺어졌고,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야 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내각장서휘편(內閣藏書彙編)<sup>36)</sup>은 앞서 만들어진 이문원서목, 열고관서목, 서고서목 등의 색인집 형태로서, 여기에 새로운 도서들이 추가되었는데, 이 들이 신내하서목(新內下書目)과 춘안당서목(春安堂書目)이다. 이 추가된 서목을 통해 당시 개항과 더불어 서양의 근대 문물에 관한 서적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과, 기존 서고에 더해 춘안당<sup>37)</sup> 서고의 존재를 알 수 있다(연갑수, 1994, 73).

29) 이문원은 정조 때부터 임금의 어진(御眞)·선적(璫籍)·어필(御筆)·어제(御製)·교명(敎命)·전장문적(典章文籍) 등을 보관하는 서고 역할을 했고 규장각 부속 건물로 소속 각신(閣臣)들이 근무하던 관서이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답사 결과, 현 창덕궁 이문원 부속 서고로 있는 상당한 크기의 '책고(冊庫)'가 봉모당 주변에 3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 승정원일기, 고종 12년(1875) 5월 10일, 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6월 3일 자 참고.

31)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1월 4일, 승정원일기 고종 13년(1876) 11월 4일.

32) 승정원일기, 고종 13년(1876) 11월 4일.

33) 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5월 28일, 9월 3일;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9월 3일.

34) 승정원일기, 고종 12년(1875) 9월 14일.

35)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2월 3일.

3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s://jsg.aks.ac.kr/>) 기본정보에 의하면, 이 책은 1877년 이전에 기록한 것을 1877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37) 고종대에 경복궁을 증건하면서 창덕궁 후원의 춘당대(春塘臺)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무문(神武門) 북쪽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이곳을 경무대(景武臺)라고 했다. 경무대의 중심건물은 육문당(隆文堂)과 용무당(隆武堂)이고 행각으로 춘안당(春安堂)이 있었다(위키실록사전).

### 3.2.3 창덕궁 입어기

경복궁 대화재로 창덕궁 입어 이후, 고종은 9년여 기간을 창덕궁에서 다시 지냈다. 고종은 창덕궁에 이어하면서 건청궁 관문각에 봉안했던 국왕의 옥책과 옥보, 대왕대비전의 옥책과 옥보 및 왕비의 교명과 옥책, 금보와 세자의 교명과 죽책(竹冊)을 또다시 주합루로 옮겼다.<sup>38)</sup> 1881년(고종 18) 3월 “수정전(壽靜殿) 여러 곳의 중건(重建)과 영건(營建)을 본소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sup>39)</sup>는 고종의 명에 따라 수정전 영역을 정비했다. 경복궁의 수정전(修政殿)과는 다른 전각이지만, 같은 해 수정전의 당호를 함녕전(咸寧殿)으로 고치고 함녕전 권역 동서남북 방향으로 4채의 별전을 지었다.<sup>40)</sup> 이 별전에는 고종대의 중요한 장서처가 되는 북별당과 서별당(협길당)이 있었다. 특히 북별당은 자순당(資順堂)이라는 당호를 받았는데 집옥재(集玉齋)로 변경되었다.<sup>41)</sup> 집옥재 상량문에는 동으로 관문각을 바라보고 남으로 보현당을 접하여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며, 각종 서적을 소장하고 국왕이 학문을 추구하는 장소로써 표현되어 있다.<sup>42)</sup> 이 전각은 벽돌 건물로 지어졌는데 화재를 당한 경험이 많은 고종이 방화기능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이민아, 114-115).

그러나 1881년 11월 시작된 함녕전 권역 공사는 그 과정에서 화재가 또 발생하여 전당과 행각이 전소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882년 6월에 완공되었다.<sup>43)</sup>

창덕궁 입어기에도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일이 벌어졌다. 개항 이후 수호 통상과 개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80년 12월 조선 최초의 근대적 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총포 등 신식 무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 관리를 파견하였다.<sup>44)</sup> 그러나 1882년(고종 19) 6월 임오 군란으로 폐지되고, 일시 대원군이 재집권하기도 했으나 대원군이 7월 13일에 다시 청국에 의해 피랍되어 일단락되었다.<sup>45)</sup> 이 사건 이후 청국 간섭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고종은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조약, 1883년 11월 26일 조영수호조약을 맺는 등 개항을 통해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 통로를 마련하고 적극적 개방정책에 나서며, 당대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도 새로운 서책과 정보를 계속 수집했다(이태진, 299). 특히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직후 1883년 7월 설치한 박문국(博文局)은 인쇄·출판기구로 한성순보(漢城旬報) 발행 등 해외의 선진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sup>46)</sup>

38) 승정원일기, 고종 14년(1877) 3월 9일.

39) 승정원일기, 고종 18년(1881) 3월 1일.

40) 승정원일기, 고종 18년(1881) 7월 22일.

41) 승정원일기, 고종 18년(1881) 9월 10일, 9월 24일.

42) 領敦寧 金柄始의 글로 문화재청이 2005년 발간한 集玉齋修理調査報告書(115-118)에 集玉齋上樑文 원문과 번역문이 소개되어 있다.

43) 승정원일기, 고종 18년(1881) 11월 2일, 11월 7일, 고종 19년 6월 8일, 6월 9일, 6월 14일.

44) 승정원일기, 고종 17년(1880) 12월 21일, 22일, 고종 18년(1881) 2월 10일.

45)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 7월 13일.

46) 박문국 설치에 대한 사료는 승정원일기 고종 20년(1883) 7월 15일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를 근거로 설치일을 추정하고 있고, 갑신정변 이후 ‘한성순보’ 등은 광인사(廣印社)로 옮겨 간행되었고, 1886년 6월 6일(음) 박문국은 폐지된다.

이 시기에 작성된 내하책자목록(內下冊子目錄)은 1884년(고종 21) 즈음, 고종이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서양 관련 서적을 수집하여 규장각에 내사한 600여 종의 자료를 목록화한 것이다.<sup>47)</sup> 이 서적의 상당 부분은 중국 영선사나 일본 조사시찰단, 박문국을 통해 수집된 개화 관련 서적으로 고종이 서재로 사용한 집옥재와 규장각 여러 서고에 분산 보관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창덕궁 내 집옥재는 뜻밖에 이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1884년 10월에 터진 갑신정변이 수습되자 신변에 불안을 느낀 고종이 경복궁으로 환어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sup>48)</sup> 갑신정변 직후, 그동안 경연처로 사용하기도 했던 낙선재(樂善齋)가 고종의 집무실로 일시 사용되기도 했다. 낙선재는 1847년(헌종 13)에 지은 건물로 사대부 주택 형식이며, 낙선재문고본(樂善齋文庫本) 목록과 진강을 여러 차례 실시한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 왕실의 서재 또는 서고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9)</sup>

### 3.2.4 경복궁 임어기

1885년(고종 22) 1월 17일 고종은 경복궁으로 환어했지만, 이전 화재로 불탔던 침전과 내전 전각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만큼 국

가 재정이 궁핍하여 쉽게 재건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1885년 1월 8일 그간 창덕궁 서향각에 봉안했던 어진과 주합루에 모셨던 전궁의 책보를 모두 건청궁 관문각으로 옮겼고 규례대로 규장각에서 봉심하였다.<sup>50)</sup> 이는 1888년 1월 17일, 다시 관문각에 봉안한 어진을 장안당으로 옮겨 봉안하고 관문각을 개건하는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유지되었다.<sup>51)</sup> 관문각은 현왕의 어진 봉안처이자 도서 수장처를 표방하며 세워진 건청궁과 집옥재의 연장선에 있는 건물로 평가된다. 궁궐 내 최초의 양관 신축으로 서구 문물에 대한 고종의 수용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낸 건축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문각의 개건은 새로운 건축기술과 공법의 도입, 예산 문제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이때 고종은 보현당의 개수와 집옥재를 건청궁 권역으로 이전하게 하고, 어진은 가회정(嘉會亭)에 이봉한다.<sup>52)</sup> 관문각은 이후 1891년 8월에 완공되었으나, 하자 문제가 있어서 어진 봉안처로 사용되지 못하고,<sup>53)</sup> 도서 수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불탔던 경복궁 내전 영역은 1888년 2월에 증건소를 설치하고,<sup>54)</sup> 5월에 상당 부분 재건했으나 고종은 의례적인 행사만 진행하며,

47)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https://jsg.aks.ac.kr/>) 설명자료 참조.

48) 승정원일기는 거사가 일어난 1884년 10월 17일(양력 12월 4일) 당일 기록은 없고,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기록이 있으며, 경복궁 이어 이후에도 정변의 주동자인 홍영식(洪英植), 박영효(朴泳孝), 김옥균(金玉均), 서광범(徐光範), 서재필(徐載弼)의 처벌에 대한 논의는 집요하게 지속된다.

49) 낙선재목록에 관한 연구로,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제를 내면서(정병욱, 1969)”가 있는데 목록 대부분이 조선 후기에 유행한 소설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고종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승정원일기에 보면, 1881년 11월부터 1885년 1월까지 신하 접견과 진강을 행했던 장소로 등장하여 관련 서적들이 비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0) 승정원일기, 고종 22년(1885) 1월 8일.

51) 승정원일기, 고종 25년(1888) 1월 17일.

52) 승정원일기, 고종 28년(1891) 7월 13일, 고종실록 28년 6월 13일

53) 승정원일기, 고종 28년(1891) 8월 13일.

54) 승정원일기, 고종 25년(1888) 2월 21일, 3월 8일.

건청궁 영역에서 주로 지냈다. 당대의 승정원 일기를 일별해 보니 1885년 4월 중국에서 돌아온 사신들을 건청궁에서 소견<sup>55)</sup>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후 정사의 중심이 경복궁 북쪽 영역에 별전 양식으로 들어선 건청궁과 건청궁에서 가까운 흥복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890년(고종 27) 10월, 역시 건청궁 영역과 가까운 향원지 남쪽에 함화당과 집경당을 새로 짓게 하는데 이 공간은 별당으로 독립된 공간이지만 집무처 역할도 했다.<sup>56)</sup> 집경당은 주로 강학의 장소로서 진강(進講)이 행해졌으며 준공 직후인 1890~1891년 사이에 왕실의 장서와 서화를 수장하기도 하였다. 집경당에 수장했던 장서는 신무문(神武門) 안쪽에 집옥재가 완공되자 그곳으로 옮겼다. 애초 집경당은 서화 수장을 목적으로 지은 것은 아니며, 관문각을 새로 짓는 동안 건청궁 관문각에 있었던 서책을 임시로 수장했던 곳이다.<sup>57)</sup>

건청궁이 있으면서도 이처럼 새로운 별당을 조성한 것은 집무처와 도서관 기능을 연결하고 서고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집경당 포쇄서목(集慶堂曝曬書目)에 보면, 집경당에 총 25,000여 점의 상당한 전적이 구비되었고, 서화를 수장하고 있었는데 특히 신문물과 관련되어 신기부(新奇部)로 분류된 275질 1,450본의 서책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서책들이 1880년대 이후 서양의 각종 과학 기술 분야를 다룬 책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집경당 서적은 상당 부분 1891년 집옥재로 옮겨졌고, 창덕궁 승화루(承華樓), 관물헌(觀物軒), 춘방(春坊) 등에서도 이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황정연, 2007, 221-224). 한편 왕세자가 거처하는 동궁에는 세자시강원을 비롯하여 승화루 이외에도 칠분서(七分書), 삼삼와(三三窩), 대축관(大畜觀)과 같은 서고가 건립되어있었는데 현존하고 있고 승화루서목(承華樓書目) 이외에도 대축관서목(大畜觀書目)이 전해진다(이정효, 2018, 51).

집옥재는 협길당, 팔우정과 함께 집옥재 권역을 이루는데 협길당 안에 봉안되었던 어진을 1893년 9월 집옥재로 이봉했다.<sup>58)</sup>는 기록으로 볼 때, 집옥재 일원이 어진 봉안처, 도서 수장처의 역할을 하며 집무처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옥재로 이건 되기 전에 서책과 어진은 집경당 외에 고종이 집무처로 사용했던 관문각, 장안당, 곤녕합에 있었고, 곤녕합 소장 서책은 승화루서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창덕궁에서 관리하던 상당수 서책이 집경당과 곤녕합에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가 집옥재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된다(이혜원, 2008, 120-125). 한편 이 시기에 동문학(1883)과 원산학사(1883), 육영공원(1886)<sup>59)</sup>과 같은 관립 외국어학교와

55) 승정원일기, 고종 22년(1885) 4월 4일.

56) 문화재청이 경복궁 함화당 해체 보수 공사 과정에서 당시 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중건 당시 상량문이 나왔고, 주용도가 침전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890년 12월부터 1894년 12월까지 승정원일기를 검토한 결과, 이곳에서 신하들을 만나고 진강도 하며, 외국 공사를 접견한 일도 여러 번 있어 이 역시 편전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7) 위키실록사전을 참고하고, 승정원일기 고종 27년 12월 18일 이후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진강과 외국 공사 접견이 1893년까지 10월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8)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9월 20일, 9월 26일.

59)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3월 6일.

사립학교가 설립되고 1887년 3월 6일에는 경북 공 건청궁에 전기등이 최초로 가설되는 등 근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3.2.5 창덕궁 입어기

1894년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고 군사 적 개입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 되던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고종은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잠시 창덕궁으로 옮겼다가 경 북궁으로 다시 돌아왔다.<sup>60)</sup> 그 구체적 사유는 사료로서 확인되지 않았다.

### 3.2.6 경복궁 입어기

경복궁으로 환어했지만 이 시기 조선의 정세 는 좋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을 막는 과정에 서 일어난 한반도 내 열강들의 세력 다툼 결과 로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청일전쟁 은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임과 동시에 한반 도 내에서는 일본군과 동학 농민군 간의 전쟁 이기도 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 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청으로부터 막대 한 배상금과 함께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넘겨 받았으며 조선에 대한 우월한 지위도 인정받았

다. 또한 전승에 취한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음력 8월 20일) 민비가 청나라를 끌어들었다 는 보복적 차원에서 민비(명성황후로 추존)를 살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sup>61)</sup>을 일으켜 공 분을 샀다.

한편 규장각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1894년 12 월 고종은 일본의 압력에 의해 의정부를 대궐 안에 옮겨 설치하여 내각으로 이름을 고치고, ‘규장각’을 ‘내각’으로 칭하지 말도록 명했다.<sup>62)</sup> 규장각은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궁내부에 소 속되었다가 1895년 4월 규장원으로 개칭되고, 그 권한이 약화되는 혼란기를 겪었다.<sup>63)</sup> 1895 년 2월에는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로 불리는 교육에 관한 근대적 조령이 내려졌고<sup>64)</sup> 그 조치의 일환으로 4월에는 한성사범학교 관계 와 관련 칙령을 반포했다.<sup>65)</sup> 이어서 1895년 11 월에도 일련의 개혁 조치가 단행되는데, 고종은 태양력 사용을 명하고, 단발을 하며 “자신을 본 받아 만국의 대열에 나란히 섬으로써 대업(大業)을 영원히 이루라”는 조칙을 내렸다.<sup>66)</sup>

### 3.2.7 러시아공사관 시기

을미사변과 일본의 내정간섭으로 신변에 불

60) 승정원일기, 고종 31년(1894) 5월 22일.  
 61) 승정원일기에는 “이날 인정(寅正)이 지난 뒤에 일본인과 2훈련대가 곤녕합(坤寧閣)에 돌입하여 변란이 창출간에 일어났는데,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植)이 곤녕합 기둥 밖에서 살해당하고 연대장 홍계훈(洪啓薰)이 광화문(光化門) 밖에서 살해당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았다.  
 62) 승정원일기, 고종 31년(1894) 12월 16일.  
 63) ‘규장각’이 대원군 섭정 이후, 다시 갑오개혁의 대상으로 폐지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규장각을 바라보는 당대의 시각과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고종은 대한제국을 반포하는 1897년(고종 34)에 다시 ‘규장각’제도를 환원하였다. 갑오개혁 당시 규장각은 궁내부 산하 6개 부속기관 중의 하나로 되었으며, ‘각신’ 대신 경(卿)·사장(司長)·교서(校書) 등이 임명되었는데, 그 지위가 높지 않았다. 규장원에는 교서사(敎書司)와 기록사(記錄司)를 두어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고 문서를 기록하는 일만을 맡겼다(한영우, 35).  
 64)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2월 2일.  
 65)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4월 16일.  
 66) 승정원일기, 고종 32년(1895) 11월 15일(이후에는 실록도 양력으로 표기된다)

안을 느낀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세자와 함께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제국 공사관에 머무르게 된다. 여기서 1897년 2월 20일까지 1년 9 일간을 보내게 된다.<sup>67)</sup> 러시아공사관 시기에도 규장각과 그 부속시설은 존재했지만, 의미 있는 기록은 찾지 못했다. 다만 고종과 세자의 거처했던 당시 러시아공사관의 도면을 보면, 상당 규모의 도서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고종이 사용했는지 고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sup>68)</sup>

### 3.2.8 경운궁 입어기

1896년 하반기에 고종이 경운궁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진전, 혼전, 침전 공사가 있었다. 이어 환궁을 요청하는 조성훈과 조병식, 심희경 등의 상소<sup>69)</sup>와 더불어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어하게 된다. 경운궁은 기본적인 궁궐 구조는 갖추었지만, 이전 궁궐에 비해 협소했다. 환어 후에 기록을 살펴보면, 즉조당(중화전)을 정전으로 하고 대유재(大猷齋)와 청목재(淸穆齋)에서 외국 공사나 신하들을 접견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문화재청, 2005, 46-47). 환궁 이후 바로 대유재에서 신하들의 진하(陳賀)를 받고, 제사에 쓰일 향과 축문을 전하는 등 의식을 거행했다.<sup>70)</sup> 대유재는 현재 창덕궁에 있는 소유재와 함께 규장각 안에 있으며 본래 이문원에 속한 건물로서

규장각 서고 역할도 한 것으로 보아 경운궁에서도 집옥재 일원과 같은 비슷한 용도로 도서수장처 및 집무처 일부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3 대한제국-경운궁 입어기

대한제국기 규장각의 기능을 한 전각은 수옥헌(漱玉軒)이다. 수옥헌은 1897년(고종 34) 황실 도서와 보물을 보관하는 용도의 황실도서관으로 계획되어 1899년 준공되었다. 한성부 건축기사로 초빙된 미국인 다이(J. H. Dye)의 설계로 1층 서양식 건물로 지어졌다. 1901년 11월 화재로 전소되어 이듬해 회랑이 있는 2층 건물로 재건축되었다. 1906년경부터는 중명전(重明殿)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904년 4월 고종이 이곳으로 이어하면서 편전 겸 폐헌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이듬해인 1905년 이곳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중명전은 외국인클럽 등 민간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내외부가 많이 변형되었다.<sup>71)</sup> 대한제국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고종의 경운궁으로의 환어는 일면 열강의 이권 격전지가 된 한반도의 국제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고, 대외적으로 독립 국가임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중주국 역할을 한 청나라와의 1899년 11월 대등한 통상 조약 협상을 체결<sup>72)</sup>하고 황제국으

67) 승정원일기, 고종 33년(1896) 2월 11일(병자, 양력 3월 24일)  
 68) 재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서에 소장되었던 구러시아공사관 도면이 2020년 11월 공개되었다. 이는 문화재청이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으로 덕수궁 중명전에서 <1883 러시아 청년 사바틴, 조선에 오다-사바틴이 남긴 공간과 기억> 특별전에 따른 것이었다.  
 69)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2월 1일, 2월 11일, 2월 13일(양력).  
 70)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2월 26일, 5월 17일(양력).  
 71) 문화재청 덕수궁 홈페이지 설명 [http://www.deoksugung.go.kr/c/introduction/2#d04]  
 72)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1899) 9월 11일(양력).

로 추인받게 된 것도 이 시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수옥헌에 관한 공식기록은 1901년 11월 16일(양력), 수옥헌에 불이 난 사실에서 나타난다. 이때 고종은 “문화각(文華閣)에 있는 보책(寶冊)과 인(印)이 화재를 당해 손상된 것이 많으니 개조(改造)하거나 수보(修補)하는 등의 일을 궁내부, 장례원(掌禮院), 농상공부(農商工部)로 하여금 즉시 길일을 택하여 거행하게 하라”는 조령을 내림으로써 당시 ‘문화각’이 또한 규장각의 일부 기능을 수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73)</sup> 이후 재건되어 이전 기능을 수행했는데 1904년 4월 14일(양력) 경운궁 함녕전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전각이 소실되었다.<sup>74)</sup> 화재의 규모가 커서 이때부터 수옥헌이 대한제국 시대의 편전 역할을 하였지만, 치욕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수옥헌이 된 것이다.<sup>75)</sup> 이후 1907년 6월 고종이 네델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도록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에게 신임장을 준 장소 역시 수옥헌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고종은 강제 퇴위되고 순종은 이들의 처벌을 지시하게 된다.<sup>76)</sup> 고종은 퇴위 되었지만, 고종대의 가장 큰 건축 사업인 석조전 건축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석조전은 법궁의 위상을 갖는 만큼 그 규모가 컸고, 신고전주의 양식의 근대 건축물로서 고종의 서구 지향성을 드러낸 파격적인 건물이었다. 석조전 2층 고종황제의

침전 바로 옆에는 고종의 개인 서재도 설계되어 있었다.<sup>77)</sup>

이상 시대별로 이루어진 간략한 고찰로 고종대 규장각과 왕실도서관 전반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시대적 변화를 같이 살펴봄으로써 큰 흐름을 통해 왕실도서관의 시공간적 변화의 의미를 정치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읽어낼 수 있다. 고종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을 연 황제로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격변에 시대를 이겨내야 했다. 규장각과 왕실도서관에 관한 고찰은 당시 정치 제도사의 일부분으로 왕권의 안정과 개화의 수용, 즉 독립 국가와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고종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 4. 고종대 왕실도서관 변천의 의의와 시사점

앞서 선행연구와 조선 시대 실록과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통시적으로 고찰한 고종대의 규장각제도 아래 왕실도서관은 그 활용 면에서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다. 이를 일별하고 그 흐름을 정리하여 <표 2>로 구성하였다. <표 2>와 같이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왕실도서관의 활동이 고종 연간 재위 기간에 따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종의 의지에 따라 도서관 역할은 한 전각, 새로 세워지거나 재건된 전각, 변천 과정에 그 기능이 잘 나타난 서재 및 서고

73)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고종 38년(1901) 10월 6일(양력 11월 16일).

74)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 1904년 4월 14일 자, 황성신문 4월 16일자, Korea Review 4월 16일자.

75)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1월 17일(양력).

76) 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7월 20일(양력), 같은 날 승정원일기에도 기록됨.

77) 답사 결과,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인터넷 사전예약으로 제한적인 관람은 허용되고 있다.



〈표 2〉 고종대 규장각의 활용 용도와 변화

궁궐 (재위 기준)	어진 봉안처	도서 수장처	주요 사건과 변화
창덕궁 (고종 즉위-고종5)	주합루(宙舍樓) 봉모당(奉謨堂) <sup>78)</sup>	취규루(聚奎樓), 용문루(隆文樓), 용무루(隆武樓), 동이루(東二樓), 의두합(倚斗閣), <sup>79)</sup> 기오현(寄傲軒)	• 대원군은 섭정을 통해 규장각 현판을 종친부로 옮기고 규장각 기능을 약화시킴
경복궁 (고종5-고종10)	수정전(修政殿)	수정전	• 외각인 교서관도 궁내로 이전 • 고종 9년 현왕 첫 어진 봉안
창덕궁 (고종11-고종12)	서향각(書香閣)	이문원(摛文院), 열고관(閣古觀), 개유와(皆有窩), 문헌각(文獻閣), 선향재(善香齋), 서고(西庫)	• 규장각제도 복원 • 이문원서목(摛文院書目), 열고관서목(閣古觀書目), 서고서목(西庫書目), 연경당서목(延慶堂書目)
경복궁 (고종12-고종14)	관문당(觀文堂)	춘안당(春安堂), 관문각(觀文閣)	• 대형화재 발생했지만, 개유와에 수장됐던 내각 서적은 보존됨 • 건청궁의 활용, 서양의 근대 서적 수집 확대 • 내각장서회편(內閣藏書彙編) - 신내하서목(新內下書目) - 춘안당서목(春安堂書目)
창덕궁 (고종14-고종22)	주합루	집옥재(集玉齋), 낙선재(樂善齋), 승화루(承華樓), 관물현(觀物軒), 춘방(春坊), 칠분서(七分書), 삼삼와(三三窩), 대축관(大畜觀)	• 집옥재는 함녕전(수정전)의 별당으로 고종의 개인도 서관 역할 • 개화 정책 추진을 보여주는 내하책자목록(內下冊子目 錄)과 박문국(博文局) 설치 • 승화루서목(承華樓書目) • 대축관서목(大畜觀書目) • 낙선재문고본(樂善齋文庫本)
경복궁 (고종22-고종31)	관문각(觀文閣) 장안당(長安堂) 보현당(寶賢堂) 가회정(嘉會亭) 협길당(協吉堂) 집옥재(集玉齋)	관문각(觀文閣), 장안당(長安堂), 군녕합(坤寧閣), 함화당(咸和堂), 집경당(集慶堂), 팔우정(八隅亭)	• 관문각-궁궐내 최초의 양관으로 개건 • 건청궁 일원에서 집무의 대부분이 이루어짐 • 집경당포쇄서목(集慶堂曝曬書目)
창덕궁 (고종31-고종31)			• 2개월여 짧은 기간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음
경복궁 (고종31-고종33)			•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발생 • 규장각을 규장원으로 개칭
러시아공사관 (고종34-고종35)			• 러시아공사관에도 서재 공간이 있었으나 활용 기록은 없음
경운궁(덕수궁) (고종35)	대유재(大猷齋)	대유재(大猷齋)	• 현 창덕궁에도 대유재와 소유재가 있고 일제강점기까 지 도서관 용도로 사용되었음
경운궁-대한제국기 (고종35-고종44)	즉조당(卽祔堂) 문화각(文華閣) 흠문각(欽文閣) 준명전(濬明殿) 정관현(靜觀軒)	문화각(文華閣), 정관현(靜觀軒), 수옥현(漱玉軒), 중명전(重明殿)	• 1906년경부터 중명전(重明殿) • 석조전(石造殿)에도 황제의 서재가 도면으로 남아있음 • 집옥재서목(集玉齋書目) <sup>80)</sup>

78) 봉모당은 현왕이 아닌 선대의 어진과 유품을 보관했던 곳이다. 창덕궁 답사결과, 현재 필내각사 영역인 규장각과 봉모당 주위에 3채의 책고(冊庫)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 서책의 많은 부분을 이곳에 보관하여 관리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79) 승정원일기 고종 2년(1865) 4월 21일 기록에 따르면 연경당(演慶堂) 의두합(倚斗閣)을 수리한 3인에게 시상한 기록이 있다. 답사 결과, 의두합과 기오현(寄傲軒)은 이전 효명세자의 서재로 전각 뒷면 위쪽으로 주합루와 학자들의 독서처였던 천석정(千石亭)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0) 집옥재서목은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 따르면, 1894~5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혜정(2021)은 현존하는 5종의 집옥재 서적 목록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시점으로는 1907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와 그 활용이 문헌상으로 드러나는 시기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sup>81)</sup>

〈표 2〉를 통해 고종대 왕실도서관 변천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고종 초기, 대원군 섭정기에는 규장각 현판이 종친부로 옮겨지는 등 종친 위주의 정치로 규장각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친정이 강화되면서 규장각 외각인 교서관도 궁내로 이전했고, 고종 9년 현왕에 대한 첫 어진 봉안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곧 왕권의 상징적 의례인 현왕의 어진 봉안을 규장각이 담당하며, 고종 11년 이후에 규장각 제도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이문원, 열고관, 서고 서목, 그리고 개화 서적 수집을 나타내는 내각장 서취편(內閣藏書彙編)도 편찬되었다. 이후 고종 31년까지 궁궐 내 대형화재와 정변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을 오가면서 왕실도서관 역할을 한 건청궁 관문각과 집옥재 일원, 함화당, 집경당이 새로 건립되었다. 고종 35년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러 국내외의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고종은 경운궁 외각에 황실도서관 수옥헌(漱玉軒)을 건립하는 등 규장각과 왕실도서관을 현실 정치에서 활용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규장각은 이렇게 정치 제도사의 일부분으로 왕권의 안정과 개화의 수용, 즉 독립 국가와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흔적을 남겼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종의 규장각은 정조의 규장각 설치 의미에 닿아있다. 정조는 왕권 강화와 개혁정

치, 문화정책기구의 산실로서 규장각을 설치하여 젊은 인재를 등용하여 널리 활용하였다. 고종 역시 법고창신(法古創新),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입장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모색하였다. 대원군 섭정기에는 위정척사(衛正斥邪)파의 득세로 힘을 쓰지 못하다가, 친정이 이루어지는 고종 10년 이후에 와서 규장각제도를 복원하고, 규장각 각신에게 현왕의 어진 봉안 기능을 부여하여 왕권 강화에 나섰다. 이는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홍문관(집현전의 후신)의 기능 즉, 왕의 글과 글씨를 관리하고 정사에 필요한 서책을 보관하고, 왕의 자문에 응했던 왕실도서관의 기능보다 어진을 봉안하며 열성어제를 관리하는 역할이 앞서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규장각 시설 전반의 운영에서 전각의 사용처를 고정하지 않았다. 경복궁 집옥재 권역에서 보여주듯 어진 봉안처, 서책수장처, 집무처의 용도를 상호 변경하거나, 하나의 권역 또는 일원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선대와 비교했을 때, 어진 봉안과 도서를 보관하는 전각이 많이 늘었다.<sup>82)</sup> 고종은 경복궁을 법궁으로 사용하며, 이궁인 창덕궁의 규장각 관련 시설도 그대로 사용하거나 신설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속 건물이 양적으로 확충된 것이다.

셋째, 고종대 규장각 관련 전각의 변화는 근대화로 나아가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고종대에 일어난 여러 번의 대형화재를 통해 복도각 등 화재의 연결통로가 되는 행각을 줄이고, 도서 수장처의 경우에는 벽돌을 사용

81) 고종대의 어진 봉안처 중, 경운궁-대한제국기는 이민아(2021b, 188)가 조사한 어진봉안처 분류표를 추가했고, 도서 수장처와 서목 작성의 시기는 이 논문에서 고증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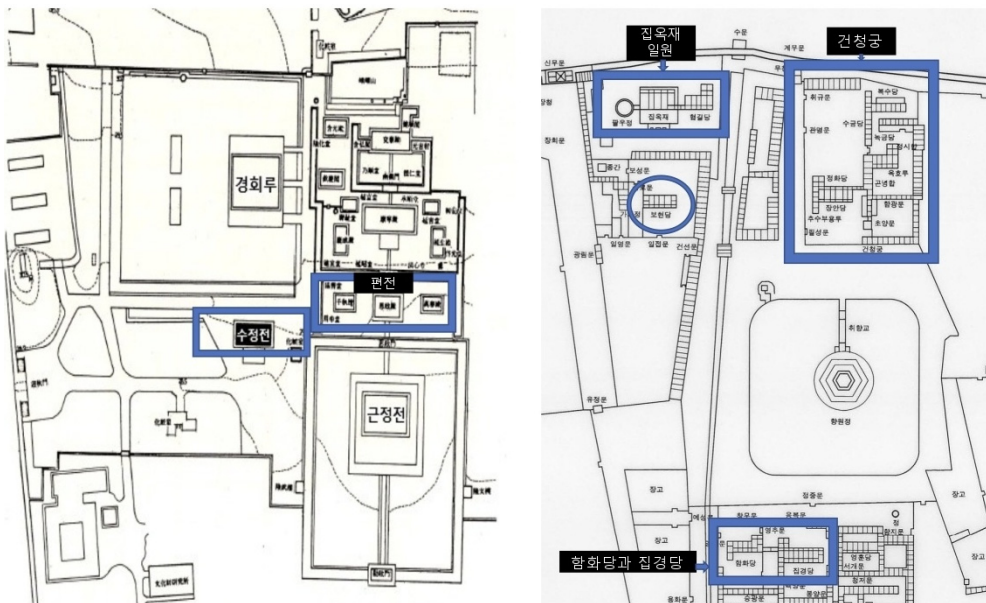
82) 정조대에도 창덕궁 안의 여러 곳에 서고와 학자들의 집무소가 건설되었고,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 봉모당, 열고관, 개유와, 서고, 서향각 등이 서고로 신축되었으며, 인정전 서쪽에 있던 오위도총부 건물을 규장각 각신들의 집무소인 이문원으로 사용하였다(한영우, 33).

하게 하였고, 특히 청대에 유행한 건축양식을 활용한 집옥재 일원과 경복궁에서 최초 양관으로 지어져 어진 봉안과 도서 수장처 역할을 한 관문각, 그리고 경운궁에서 역시 어진 봉안과 도서 수장처, 집무처의 기능을 한 정관헌과 수옥헌, 석조전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건축양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기존의 전통적 양식보다는 사대부 사가 형태를 선호하고 당대 중국의 유행 양식과 서구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양관 형태의 건축적 시도도 계속되었다.

넷째, 고종대의 왕실도서관, 특히 고종이 집무에 활용하기 위한 개인 서재의 위치는 침전과 집무처 사이에서 멀지 않았고, 후원의 별전

의 형식으로 발전했다. 이는 <그림 1, 2, 3>의 궁궐 배치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림 1>의 경복궁은 법궁 정전의 대표적 전형으로 중국의 예처럼 왕궁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하학적 분할과 좌우 대칭의 규격화된 수직적 관계도를 보여준다. 경복궁 영역을 보면, 과거 세종대 집현전(그림 원편 현, 수정전)<sup>83)</sup>은 편전인 사정전 영역과 담 하나 사이를 두고 붙어 있다. 이는 왕의 집무처와 왕실도서관이 대단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왕과 집현전 학자와의 교류가 용이했고, 집현전이 정책 수행의 핵심 부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그림 1> 경복궁 영역의 왕실도서관 배치도<sup>8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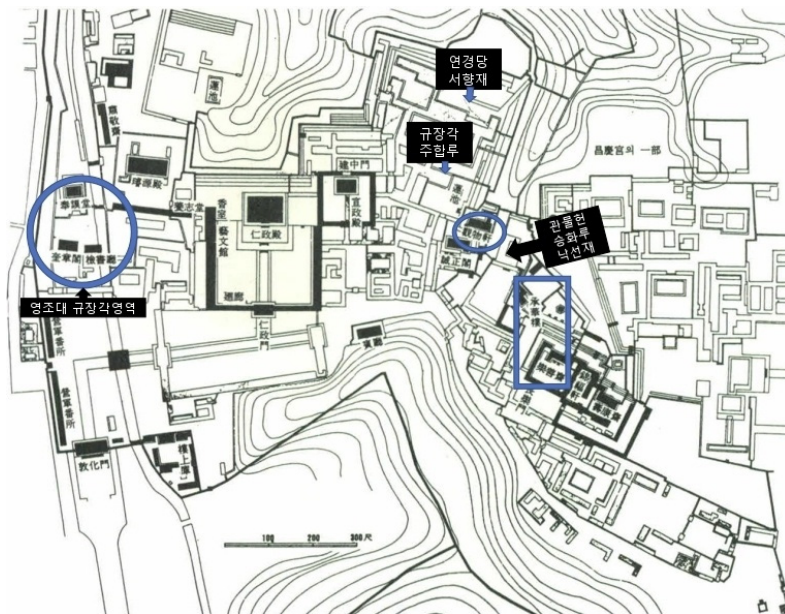
83) 세종 때 집현전은 세조 때 예문관으로 바뀌었고, 고종대에 수정전으로 복원되었고, 갑오농민전쟁 후에 군국기무처로 사용되어 갑오경장이 일어난 역사적 장소이다(유홍준, 2011, 61-62)

84) 2002년, 경복궁·광화문 및 기타 권역 복원정비계획 기술용역의 결과, 문화재 원형 기록정보시스템에 남아있는 북궐도형(도면 사적 제117호) 도면의 일부를 편집하였다.

고종은 세종과 달리 경복궁 후원(향원정)을 중심으로 북쪽 별궁 형태의 건청궁(집무처와 침전-그림 오른쪽)과 집옥재(창덕궁에서 이진) 권역, 보현당(어진 봉안처)을 새로 짓거나 개건하고, 향원정 아래 도서 수장처로서 함화당과 집경당을 새로 지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정조가 규장각을 창덕궁 후원인 주합루 일대에 설치하여 운영한 것을 모방한 계승의식, 경복궁 내전의 잦은 화재와 복구 지연, 궁중 의례의 변화와 국제정세의 대응 등 여러 면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확한 이유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sup>85)</sup>

(2) <그림 2>는 창덕궁 왕실도서관 관련 배치도다. 창덕궁은 경복궁과 달리 자연에 맞추

어 궁궐을 형성하여 좌우 대칭으로 규격화되지 않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를 지닐 만큼 아름다운 궁궐이다. 다만 본각과 후원의 거리 간격이 길고 멀다. 고종은 창덕궁을 이궁으로 사용했고, 경복궁을 오가면서 기존의 규장각 시설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록상, 경복궁 수정전을 창덕궁에 다시 지으면서 함녕전으로 고치고 네 개의 별전을 지었는데 그중 하나가 집옥재이다. 현재 창덕궁 배치도와 동궐도(東闕圖)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더라도 궐내각사 지역인 내각 영역(그림 왼쪽)은 어진 봉안 등 규례에 치중하고, 외연 확대가 용이한 후원 영역인 주합루·연경당이 중심이 되어 동



<그림 2> 창덕궁 영역의 왕실도서관 배치도<sup>8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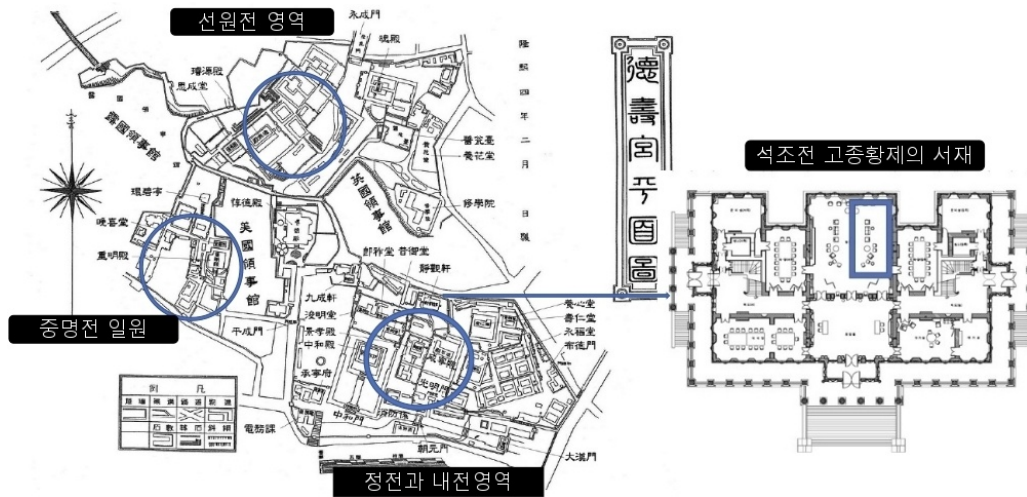
85) 유흥준(2011, 101)은 이에 대해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갈등,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왕으로서의 정통성의 확립, 이후의 통치구상, 거소에 대한 인간적 일상의 추구로 해석했다.

86) 1910년대 일제가 펴낸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실린 창덕궁 일곽의 배치도로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contents.history.go.kr)에서 제공한 도면으로 편집하였다.

서쪽 연결 선상에서 있는 관물헌, 승화루, 낙선재 등이 고종과 왕세자, 왕실 일원의 왕실도서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87)</sup> 이를 통해 경복궁 후원 영역에 조성된 왕실도서관 기능을 수행한 여러 전각의 기본 모델이 정조대의 규장각에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정조대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순조대에 연경당, 헌종대의 낙선재와도 건물 양식과 용도 면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유홍준, 2011, 101). 다만 시대 변화에 맞추어 중국식 벽돌의 사용과 서양식 건축의 도입은 고종의 선호와 근대화 의지, 19세기 말 궁궐 건축 변화의 경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그림 3>은 경운궁 영역이다. 아관파천이 명성황후의 살해에 기인한 것처럼 러시아공

사관에서 경운궁으로의 환어도 고종이 뜻한 결과는 아니다. 일국의 왕마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격변의 시대였다. <그림 3> 좌측에서 나타나듯 러시아공사관을 비롯해 서구 각국의 공사관이 경운궁 주변에 모여있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포석이었을 것이다. 경운궁이 법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통치의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정전과 왕가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선원전은 필수 시설이었다. 따라서 급작스럽게 이어한 경운궁에서 고종은 이 필수 시설을 만드는 데 급급했고, 왕실도서관이라고 할 만한 이전의 도서 수장처를 마련하기보다는 어진 봉안과 왕의 서재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각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다만, 주변이 정리되면서 경운궁을 확장해서



<그림 3> 경운궁 영역의 왕실도서관 배치도<sup>88)</sup>

87) 이 글에서는 고종을 중심으로 다루어 세자의 서재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은 하지 않았다. 세자는 세자시강원을 비롯해, 왕세자 독서를 비롯해 서연을 연 성정각(誠正閣)도 있었다(유홍준, 2017, 177).

88) 경운궁 전체 평면도는 구글 검색을 통해 오다 쇼고(小田省吾)의 <德壽宮史(1938)>에 수록된 '덕수궁평면도'를 기초로 했고, 석조전은 '덕수궁 석조전(분관) 복원공사자료집(2014)'에 게재된 도면을 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것을 편집하였다.

수옥헌 일대(그림 원편 증명전 일원)로 넓히고 정관헌을 비롯한 여러 채의 양관을 건설했다. 그중에서도 황제의 도서관으로 알려진 수옥헌(그림 원편 〇)은 경운궁의 대표적인 서구식 전각으로 역시 경운궁 본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별전의 형태를 갖는다. 이번 증명전 답사 중에도 확인되었는데, 정문 입구에서 담 하나를 두고 미국대사관 사저와 마주하고 있고, 뒤편에 만희당(晩喜堂)의 빈터가 보존되어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곳은 과거 수옥헌이 편전 역할을 할 때, 침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89)</sup> 이 외에도 <그림 3> 증명전 일원에서 보듯 10여 채의 건물이 있어 이 일대를 수옥헌 구역으로 불렀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운궁에 세워진 서구식 정전인 석조전(그림 오른쪽) 2층 평면도에도 황제의 서재<sup>90)</sup>가 배치되어 있다. 고종은 당시 서양에서 가장 보편적이었던 신교전주의 건축양식의 석조전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제국이 서양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대한제국은 서구식 근대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안창모, 2013, 88). 경운궁은 그 규모 면에서 경복궁, 창덕궁에 비할 데 없이 작지만,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썼던 곳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했고, 광무개혁을 추진했으며, 대한민국(大韓國)

국제(國制)<sup>91)</sup>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섯째, 고종대에도 정조대 이후부터 규장총목(奎章總目)에서 집옥재서목(集玉齋書目)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서 목록이 만들어졌다. 정조 때 규장각에 수집된 책은 정조 5년 중국본 2만책, 한국본 1만책, 도합 3만여 책이었으며, 중국본은 규장총목, 한국본은 사고서목, 누판고, 군서표기 등 해제 겸 목록이 만들어졌다(한영우, 1997, 33). 고종대는 이문원서목(摛文院書目), 열고관서목(閱古觀書目), 서고서목(西庫書目)이 중심을 이루며 전각별로 만들어졌다. 그 중에는 연경당서목(延慶堂書目), 승화루서목(承華樓書目)이 있고 산내하서목(新內下書目)과 춘안당서목(春安堂書目)을 포함하고 있는 내각장서회편(內閣藏書彙編)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집경당포쇄서목(集慶堂曝曬書目), 대축관서목(大畜觀書目), 기존의 낙선재문고(樂善齋文庫) 목록까지 각 서책의 소장 전각의 목록들이 전해져 오며, 고종 말기에는 장서 규모가 10만 책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규장각 전체 장서 중 고종대에 가장 많은 서적이 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근대화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는 서구의 책들이 중국 번역본으로 입수되었다. 조선시대 수집 자료 중, 고종이 수집한 서적은 1,924종이며 전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2)</sup> 특히 1884년(고종 21)경

89) 만희당(晩喜堂)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은 승정원일기(1907년, 양력 9월 16일)에 나타난다.

90) 현재 석조전 2층 고종 황제의 서재는 당대 가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 메이플사(Maple Co.)의 고가구를 배치하여 재현해 놓았으나, 석조전이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직후 준공되어 설계 목적대로 사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91)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8월 17일(양력).

92) 당시 고종의 개화 관련 신간서적에 대한 관심은 1888년경, 상해에 있는 16개 서점의 판매 도서목록을 모은 상해서장각중서적도첩서목(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 편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종 실각 이후 1908년 규장각 도서는 정리과정에서 제실도서(帝室圖書)로 명명되고 '帝室圖書之印'이 날인되었다. 1909년 11월에 작성된 帝室圖書目錄에 의하면, 규장각 도서의 총량은 5,493부 103,680책에 달했다(윤지양, 4; 한영우, 35-36).

고종이 근대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서양 관련 서적을 수집하여 규장각에 내사한 것을 목록화한 내하책자목록(內下冊子目錄) 등을 통해 당대의 지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sup>93)</sup>

## 5. 결론

고종대로 대표되는 19세기 후반은 기존의 한·중·일 관계에 더해 열강에 의한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이른바 서세 동점의 시기이다. 조선 내부에서도 문호개방을 둘러싼 개화와 척화, 봉건 타파와 외세배격, 내정 개혁이라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내각'으로 표현될 만큼 내정의 핵심기구였던 고종대의 규장각도 이러한 국내외 정세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사 속에서 고종대 규장각 직제에 있었던 왕실도서관의 역사를 먼저 연대사적으로 구분하고, 이어서 당대의 정치, 사회적 이슈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선행연구와 관련 사료의 추적, 답사를 통한 확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였고, 최종적으로 당대에 가까운 궁궐 배치도에 규장각 왕실도서관 관련 전각들을 표시하고 그 변천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앞서 논의된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종은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임오군란, 갑신정변, 을미사변, 청일전쟁, 아관파천, 러일전쟁, 을사늑약 등 정

변, 외세의 개입과 전쟁, 사회적 혼란, 잇따른 궁궐의 대형화재 등을 겪으면서 경복궁, 창덕궁, 경운궁으로 10여 차례 이어와 환어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규장각 하에 왕실도서관이 제대로 자리 잡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고종대 규장각은 과거 세종조 집현전이나 정조 때 나타났던 학술 및 정책연구 기관으로서 위상이나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연결되어 발전하지 못했다.<sup>94)</sup> 시대적으로 대원군 섭정기에는 그 기능이 약화되어 종친부에 속했고, 고종 친정기에 다시 그 기능이 회복되어 개화 추진의 도구로도 활용되었으나, 갑오개혁의 혁파대상으로 규장원으로 격하되기도 했다. 이는 규장각이 오랫동안 유력 가문의 정치적 발판으로써 정쟁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침이 있었지만, 규장각은 대한제국기에 이전 제도로 복원되었다. 당시 수옥헌이라는 양관 형태의 황실도서관이 만들어졌고 고종의 편견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제도와 기능 면에서 근대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둘째, 정조대 규장각은 '내각'이라는 이름으로 궐내각사의 여러 기능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고종대 규장각의 주기능은 현왕의 어진 봉안처였다. 이를 통해 규장각은 국왕에 대한 상징적 의례 공간으로서 성리학적 정신문화를 주도하며, 왕권의 강화와 개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었다. 주요 어진 봉안처로는 주합루, 봉모당, 수정전, 서향각, 관문각, 장안당, 보현당, 협길재, 집옥재, 대유재, 즉조당,

93) 규장각 제도하에 도서 수장처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왕실에 속한 개별 서재를 다 포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연과 서연을 중심으로 강화이 이루어진 여러 전각이 일정 부분 서적 수장고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94) 국가적 정책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을 위한 조치로 세종대는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가 시행되고, 정조대는 초계문신제도(抄啓文臣制度)가 있었는데, 이들 수혜자 대부분이 집현전과 규장각을 거친 인물들이었다.

문화각, 흙문각, 준명전, 흙문각, 정관헌 등이며, 궁별로 시기별로 권역을 이루며 도서 수장처, 집무처 역할을 하는 전각과 연계되었다.

셋째, 고종은 정조대 이후 사용된 ‘규장각’과 부속 전각을 사용하기보다는 궁별로 집무처 근처에 전각을 신축하거나, 개진, 이진, 또는 용도를 바꿔서 사용했다. 새로운 왕실도서관 공간이 필요했던 것은 대형화재, 정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편전 역할을 한 집무처 근처에 개인 서재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었고, 고종대에 새로 구입한 서적이 이전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왕실 전반의 도서 수장처로는 취규루, 용문루, 용무루, 동이루, 의두합, 기오헌, 수정전, 이문원, 열고관, 개유와, 문헌각, 선향재, 서고, 춘안당, 관문각, 집옥재, 낙선재, 승화루, 관물헌, 춘방, 관문각, 장안당, 곤녕합, 함화당, 집경당, 팔우정, 대유재, 문화각, 정관헌, 수옥헌 등이 조사되었다. 각 전각에 따른 서목으로는 이문원 서목, 열고관서목, 서고서목, 연경당서목, 내각장서회편(신내하서목, 춘안당서목), 승화루서목, 내하책자목록, 집경당포쇄서목, 대축관서목, 낙선재문고본, 집옥재서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고종대의 왕실도서관의 공간적 배치는 후원 영역, 별전(당)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경복궁, 창덕궁, 경운궁에서 시기에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양태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왕의 집무처와 가까운 공간에 어진 봉안처와 도서 수장처를 두어 3종의 전각이 하나의 권역을 이루는 형태를 나타냈다. 건축양식에서는 화재에 강한 벽돌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당대 유행한 청나라의 건축 형태의 모방에서 서구식 건축양식으로 변화가 있었다. 집옥재 일

원은 벽돌로 지은 입식 생활공간인 청나라 양식과 조선식 건축 형태를 혼합했고, 사대부 양식을 띤 건청궁에 궁궐 최초로 양관 형태의 관문각을 지었다. 서양식 건축 형태의 전각들은 경운궁에 이르러 정관헌, 수옥헌과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전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양식에서 커다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다섯째, 19세기 말 근대화과정에서 규장각의 역할은 고종의 적극적인 근대 서적 수입에서 나타났다. 규장각의 서적 수입은 국가적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당대의 세계관과 문화수용 자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내하책자목록 등 여러 서목의 분석을 통해 고종의 근대화를 향한 정책 의지와 수용적 태도가 파악되었다. 다만 근대 서적을 통한 고종의 근대적 지향이 왕실도서관의 발전적 진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개인 서재라는 특성과 전제 군주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근대 국가의 전제는 독립 국가였고, 시대 상황에 부응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에서 시작되지만, 그 역사가 역사다운 것은 그 역사를 깊이 성찰하고 교훈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견 역사에 대해 논하면서 “부분적으로 맞는데 전체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어느 단면을 어느 일정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유에서 고종대 도서관 전체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글 역시 필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선택된 선행연구로 제한되었고, 기록과 현상을 넘어 이면과 본질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논점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는 역량과



제한된 지면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한계가 크다. 다만, 도서관사의 인식을 당대의 정치, 사회, 문화사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 근대도서관의 시작을 논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필수 과정이 아닌까 생각된다. 결국 이 논문의 구상은 우리나라 근

대도서관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출발했고, 그 문제는 근대와 맞닿아 있는 고종대 왕실도서관에서 시작해야 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후속 연구는 전제적 왕실도서관에서 근대적 공공도서관으로 이어지는 19세기 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문화재청 (2005). 덕수궁 복원 정비 기본계획. 서울: 문화재청.
- 안창모 (2013). 경운궁과 제국의 두 얼굴, 석조전과 중화전. 한국건축, 88-94.
- 연갑수 (1994). 高宗 初中期(1864~1894) 정치변동과 奎章閣.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 17, 57-75.
- 유홍준 (2011). 나의 문화유산답사기⑥, 서울:(주)창비.
- 유홍준 (201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⑨, 서울:(주)창비.
- 윤지양 (2020). 근대 지식을 읽다: 집옥재 소장 중국 서적 12종 해제. 부산: 산지니.
- 이민아 (2021a). 고종대 궁궐 儀禮空間 정비의 지향.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이민아 (2021b). 고종대 궁궐 내 현왕 어진봉안처의 변화와 '규장각' 계승. 한국문화, 95, 173-205.
- 이정호 (2018). 『大畜觀書目』과 『承華樓書目』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73, 35-52.
- 이태진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서울: 태학사.
- 이혜원 (2008). 景福宮 중건 이후 殿閣構成의 변화: 「경복궁」 배치도와 「北闕圖形」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혜정 (2021). 집옥재서적목록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85, 97-116.
- 장영숙 (2009).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205-240.
- 장영숙 (2012). 『集玉齋書目』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 실상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 61, 7-39.
- 정병욱 (1969).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제를 내면서. 국어국문학, 44·45, 1-64.
- 정옥자 (2006). 奎章閣의 지식기반 사회적 의의와 동아시아문화. 규장각, 29, 93-120.
- 하원호 (2001). 고종-구국의 '우리 황제'인가? 망국의 인물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6, 171-181.
- 한영우 (1997). 규장각 자료의 정리와 활용. 국사관논총, 73, 31-50.

홍순민 (1999). 우리 궁궐 이야기. 서울: 청년사.

황정연 (2007). 고종 연간 集慶堂의 운용과 宮中 書畫收藏. 문화재, 40, 207-24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Chang-mo (2013). Two faces of the empire, Seokjojeon and Joongwhajeon in the imperial palace(SERIAL: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⑧). Korean Architects, 88-94.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5). Basic Plan for Restoration and Maintenance of Deoksugung Palace. Seou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Ha, Wonho (2001). King Gojong - is he the 'our emperor' of salvation? Are you a character from a ruined country? History that Opens Tomorrow, 6, 171-181.
- Han, Young-woo (1997). Organization and utilization of Gyujanggak materials. Gugsagwannonchong, 73, 31-50.
- Hong, Soon-Min (1999). The Story of Our Palace. Seoul: Cheongnyeonsa.
- Hwang, Jung-yon (2007). The collection of paintings and calligraphy at Jipgyeong-dang Hall during King Gojong's reign(1897~1907). Cultural Heritage, 40, 207-241.
- Jang, Yooyng-sook (2009). King Gojong's collection of 'Enlightenment' - themed books, and their influence upon him - examined through the 『Naeha Chaekja Mokrok(內下冊子目錄)』. The Historical Studies on Korean National Movement, 58, 205-240.
- Jang, Yooyng-sook (2012). Fact and use of enlightenment books collected by Gojong through the analysis of Jibokjae Seomok(Catalogue of Books in Jibokjae(集玉齋書目).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61, 7-39.
- Jeong, Ok-ja (2006). Significance of knowledge-based social in Kyujanggak and east asian culture. Kyujanggak, 29, 93-120
- Jung, Byung-wook (1969). While promulgating the list and release of Nakseonjae Librar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44 · 45, 1-64.
- Lee, Hyejung (2021). A bibliographical study on catalogue of books in Jibokja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5, 97-116.
- Lee, Jung-hyo (2018). A study on Daechukkwan-seomok and Seunghwaru-seomok.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3, 35-52.
- Lee, Min-Ah (2021a). The Ritual Space in Royal Palaces under Gojong.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Min-Ah (2021b). Changes in the King's portrait house and the succession of 'Kyujanggak' under Gojong.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 Korean Culture*, 95, 173-205.
- Lee, Taejin (2000). *Re-illumination of the Era of King Gojong*. Seoul: Taehaksa.
- Yeon, Gapsu (1994). Political Changes and Kyujanggak in the early and middle period of King Gojong(1864~1894). *Kyuj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17, 57-75.
- Yi, Hye Won (2008). *A Study on the Changes to the Jeongak Complex after the reconstruction of Kyeongbokgung: With a focus on Kyeongbokgung Baechidoj and Bukgwoldohyeongj*.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 Yoo, Hongjun (2011). *My Cultural Heritage Exploration*⑥. Seoul: Changbi Publishers.
- Yoo, Hongjun (2019). *My Cultural Heritage Exploration*⑨. Seoul: Changbi Publishers.
- Yoon, Jiyang (2020). *Reading Modern Knowledge: Release of 12 Chinese books from Jibokjae's collection*. Busan: Sanji.

